

시설관리공단 設立 본격 推進

**예산반영 관련 조례제정 ... 내년 하반기 법인설립
최종 용역보고회, 9개 대상 초기부터 수지비율 높아**



포천시는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경제적 타당성이 높고 관리방식이 적정하다고 기대되는 포천 종합운동장 전경).

포천시는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회를 갖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예산 및 관련 조례제정 등을 입안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기획안을 수립한 이후 타당성 용역을 위해 제1차 추정예산을 편성하고 8월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해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김두옥 책임연구원은 "포천시가 검토 의뢰한 21개 대상사업을 필터링한 후 9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설립 초기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지비율 또한 매우 양호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두옥 책임연구원은 또 공단설립의 기본 전제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의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민간경제 위축되지 않고, 경영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방식을 선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설립의 평가 기준으로 ▶공단위탁을 통한 운영 효율화로

비용절감 또는 수익증대 효과가 있는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단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가능한지 및 탄력적인 인력구성으로 효과적 운영의 조직구성 및 인력구성의 타당성 ▶사업의 특성상 공단위탁의 관리방식이 현재의 관리방식보다 적정함에 관한 관리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사업별 개별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호수관광지, 백운계곡관광지, 종합운동장, 청성공원,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쓰레기규격분류관매 등은 경제적 타당성 높고 관리방식이 적정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청사 청소용역과 포천반월아트홀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관리방식이 시설관리공단과는 맞지 않다고 검토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설립초기 소요인력은 이사장을 비롯한 정규직 18명과 일용직 35명 등 53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단설립 향후 5년 동안 추정손익을 계산한 결과 영업이익은 17억6천3백여만원으로 대상사업을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설립초기부터 수지비율 등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재경포천시인 등 출향 시민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자동이체를 이용해서도 됩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30일 현재 37개 학교 189명에게 1천89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과 직접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서로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에 계좌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고마운 분들과 지금은 비록 어려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워 나가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포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 성금 및 물품 접수내역
- 강대민 대원천막 대표 100,000원
 - 박해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기부장 239,000원 (사랑의 동전모으기운동 지폐입금분)
 - 서금자 20,000원(자동이체)
 - 고남석 제일사우나 대표 470,000원
 -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윤이용 위원장 및 위원일동 800,000원 (김장김치전달)
 - 고은중합정기(주) 200,000원(김장김치전달)
 - (주)삼우석재 강수동 회장 500,000원(김장김치전달)
 - 최창호 청성초등학교 교장 50,000원
 - 백봉기 송이산업 대표 100,000원

- ▶▶▶ 성금 및 물품 전달내역
- 청성초등학교 6학년 전진아 100,000원
 - 청성초등학교 6학년 나소라 100,000원
 - 청성초등학교 6학년 최진수 100,000원
 - 청성초등학교 5학년 정진우 100,000원
 - 청성초등학교 5학년 최현열 100,000원
 - 일동종합고등학교 1학년 강대일 100,000원
 - 일동종합고등학교 1학년 이고은 100,000원
 - 일동종합고등학교 1학년 강해은 100,000원
 - 일동종합고등학교 2학년 김대용 100,000원
 - 일동종합고등학교 2학년 박선영 100,000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주)한국정보 포천신문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창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實施

抱川市, 생활안전 등 17개 업무 수행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포천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단체로 선정돼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천시와 함께 내년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는 지방의 회가 동의하면 조례로 도입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

단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폐지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 선택여부에 달려있다.

2004년 제정된 자치경찰법은 시군 및 자치구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대를 이원적으로 설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자치총경, 자치경정 등)은 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 시장 등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대장은 경력직공무원(자치총경 혹은 자치경감)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개방형 직위로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 및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 경찰관 등 17종의 직무

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수행할 우선 업무는 공동주택, 학교, 시장, 공원 등과 같은 자율질서 체계가 갖춰져 있고 지역주민에게 봉사위주의 경찰업무다. 또 자치경찰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세분화하지 않고 기초질서 단속업무 혹은 교통정리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과 업무수행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신분은 소속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구분하지만 승진과 보수 및 신분보장 등은 국가경찰과 같은 대우를 할 계획이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도로 건물 주소체계 바뀐다 올 연말까지 D/B구축 내년부터 실시

포천시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포천동 등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로 목표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해 작성된 토지번 주소체계로 불규칙하고 복잡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목적지를 찾는데 매우 불편한 체계로 되어있다.

이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과 같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되,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900여개

의 도로구간 및 3만3천여개의 건물 주출입구를 조사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도로구간별 이름을 포천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다.

또 2006년에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시점과 종점, 건물 주출입구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도로명 부여사업이 완료되는 시 홈페이지(www.pcs21.net)so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찾고자 하는 건물명이나 구 주소 등을 입력하면 건물의 새주소 및 위치정보는 물론 병의원이나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건물의 위치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안전에 행복을 더했습니다!

‘안전’에 돈이 든다구요? 「Clean」사업이 있습니다

「Clean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로시설개선지원 | 제조업 사업장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설비,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안전보건기술지원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Clean사업으로 앞서가십시오!
전화 031-826-6092